

자연과 함께 동화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

## 옥정마을

수신 수신처

(경유)

제목 군산시 옥구읍 옥정마을 정비구역지정 요청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군산시 옥구읍 옥정 마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주민 민원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첨부 와 같이 제출하며 이를 검토 후 조치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레-

- 군산시 옥구읍 옥정마을 현황
- 옥정마을 국가 기반시설 자동차 전용 도로 및 산업 철도개발 현장 설명
- 철도공사 측 담당자의 현장 답변
- 옥정마을 문제점 해결을 위한 민원요구
- 종합적 민원 요구사항. 끝.

수신처 : 국민권익보호 위원회, 군산시, 국회의원 신영대

옥정마을 이장



총무 강영철

이장 변후섭

협조자

옥정 -01 (2021.02. 25) 접수

우 54172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35

E-mail [seascout1@hanmail.net](mailto:seascout1@hanmail.net) 전화:010-3680-6248

## 가. 군산시 옥구읍 옥정마을 현황

우리 마을 옥정리는 군산이라는 지명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명으로. 과거에는 약70여 세대에 290여명이 거주하였으나.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에 따라 일부 주민이 땅, 집을 국가에 할 수 없이 팔고, 다 떠나, 현재는 49 가구에 평균연령 약70세의 고령인구 80여명이 특별한 문화 시설 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 없는 마을, 그래도 군말 없이 옹기종기 대를 이어 착하게 살아가는 작은 마을 가운데로 자동차 전용 산업도로가 개통되고, 이어 새만금산업단지 에너지로 사용되는 대형고압 도시가스가 (개인 주택 80cm앞으로) 관통하며, 마을입구에는 볼 상 사납게 가스 밸브 스테이션이 신축되어 마치 토마호크 미사일 기지와 같이 우뚝 자리 잡고, 뒤이어 무더운 여름철에 새만금과 연결되는 산업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온갖 비산 먼지로 문도 못 열고.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고, 공사 소음에 따른 고통을 5년을 넘게 당하며 지내고 있으며, 흉물스러운 대형 콘크리트 철교가 아름답던 우리 마을을 중앙을 관통하여, 미관을 크게 해치고, 철도시설 주변에 안전을 위한 보안 철조망으로 뱅뱅 둘러 마치 옥정마을 자체가 커다란 교도소 같은 분위기를 완벽하게 연출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초 고압선이 지나가고, 흉물스러운 군산교도소 철조망 ,그래도 지역주민으로써 애써 참는 예비군 사격장 총소리,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에 없는 시설은 다 있고, 다른 마을에 있는 시설 마을회관 하나 없는 마을,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구슬옥에 우물 정 물 좋고 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만 국가 기반공사로 인해 수맥이 끊어진 마을, 그래도 많은 것을 욕심스럽게 바라지 않고 주어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착한 사람들이 범죄 없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 나. 옥정마을 국가 기반시설 자동차 전용 도로 및 산업 철도개발 현장설명

참석자 : 군산시 시의장 외 시의원 다수, 군산시청 관계공무원, 옥구읍장외 관계직원, 옥정리 이장외 주민, 철도관계 담당



2021년 2월 16일 16시 현장 설명회 사진

### 옥정리 이장 : 피해 및 위험요소 사진과 동영상 제시 및 부연 설명

1. 마을 한 복판을 지나는 콘크리트 철교는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를 결빙, BLACK ICE 현상을 일으켜, 최고의 위험요소로 자리하고 있어 여기를 오가는 차량에 위협의 대상.



BLACK ICE로 발 발기는 시내버스 결국은 운행을 중지하고 회차

## 2. 교량 밑 신도로 개설 및 현제도로 원상복구



현재 철교 밑 도로는 원래의 지반 고에서 철교의 높이가 낮게 설계되어 대형 차량이 통과 하지 못하자 도로를 저수지 수면보다 낮게 파고 배수구를 저수지 쪽으로 제작 설치한 토목 공법은 육안으로 보아도 현저하게 높이가 차이가 나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공법은 무슨 공법인지 이를 시공한 실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 시공사에 철도 관련 부실공사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3. 농업용 옥정저수지 준설 요청



저수지 준설은 동부건설과 사전에 준설하기로 약속하고 위 사진과 같이 주민들이 자체비용을 들여 배수를 하고, 동부건설 측에 1월중에 준설을

요청하였으나 동부건설은 이미 공사를 마치고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준설과는 무관하다고 통보 받고 보니, 이에 열 받은 옥정리 이장은 군산시 도시계획과 담당을 통하여 발주처인 철도 공사에 준설을 재요청 하였으나 이미 준설을 하였다고 거짓 사진을 제시, 이에 대한 반문 자료로 위 사진으로 현장에서 제시하자 아무 말 못하는 담당은 그래도 저수지는 철도공사와 관계도, 문제도 없다고 장황한 거짓과 거짓으로 일괄 하는 모습 참 가증 서럽기 짝이 없었다.

#### 4. 자연 침수되어 문제가 없던 농수로에 인위적 수로로 인하여 침수된 논.



2020년 8월 8일 흙탕물로 침수된 논

그 동안에는 어떤 폭우 시. 자연히 지하로 침수되는 빗물과 자연히 흐르는 빗물이 이렇게 까지 논을 잠기게 한 적이 없는 천수답 논!  
철도공사가 시작되고 매년 침수되어도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 원인은 철도 주변 우수를 한곳에 모아 곳곳에서 설치된 배수로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농수로로 직접 유입되는 바 2020년 8월8일 강수량을 찾아보고 이야기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철도담당 말에 또 한 번 웃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최초 설계 시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설계하고 시공하였음을 거침없이 자인한 것이 아닌지 이에 따라 또 한 번 철도공사 자체를 부실공사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인정됨.

5. 옥정마을은 다른 마을에 없는 것들이 다 있고. 그리고 다른 마을에 있는 것은 없다.



철도 주변에 설치된 철조망

우리 마을은 참 다양한 혐오시설이 있다. 첫 번째 산업도로가 먼저 작은 옥정마을을 반토막내고 두 번째 새만금 도시가스관이(900mm) 이장 집문 80cm 앞으로 통과하고, 세 번째 산업철도 건설로 마을 한가운데로 마을에서 아니 옥구읍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구조물, 그리고 고압선, 여기에 부수적으로 군부대 사격장, 군산교도소등 혐오 시설이 있어 사람들은 옥정마을 자체를 교도소라 부른다. 그럴만한 이유는 위 사진과 같이 마을 입구부터 좌우로 이중삼중 철조망이 위엄을 보이고 마치 토마호크 미사일 기지를 연상케 하며 아래 사진과 같이 무시무시하게 그 위엄을 자랑하고 있다. 마을 양쪽 출입구에 검문소만 있으면 누구하나 빠져나가지 못함.

다른 마을에 없는 시설은 다 있는데, 다른 마을에는 다 있는 시설 중 마을회관 하나 없고, 주민 문화공간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가스벨브스테이션 (공군기지 생각으로 사람들의 별명 미사일 기지)

## 6. 곳곳에 위치한 위험한 장소



곳곳이 설치된 철도 일부 우수 배수로에 실족방지 안전 그레이팅이 설치 되어있지 않아, 여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는 장애가 있는 주민과 노인들이 빠져 다칠 일이 뻔하고, 공사 시 그레이팅 설치를 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자체적으로 현 나무 파렛트를 얻어다 임시적으로 덮어놓은 상태임.

## 7. 마을 한 가운데로 통과하여 시설된 산업철도 철교와 자동차 전용도로.



대형 콘크리트구조물로 마을중앙을 보기 좋고 위풍 있어 보이지만, 마을에는 미관과 소음으로 주민행복 추구권을 해치고 있는 흉물스러운 산업철도교량과 자동차 전용도로.

## 8. 자동차 전용도로부근 상시 결빙구간



방음벽이 문제로 이를 투명으로 교체하여 주민 안전 확보

## 9. 옥정마을 중앙도로



버스한대 겨우 지나 갈 정도의 마을 중앙도로. 우리나라 전체를 여행하고, 돌아 다녀 보았지만 이렇게 좁은 마을 중앙도로는 몇몇 섬마을 제외하고는 다녀 본적이 없다.

## 다. 철도공사 측 담당자의 현장 답변

철도 담당자가 시 의장 및 시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주민들 앞에서 뿔뿔이 **현재 철도공사 설계를 국가가 인정하였고, 감리 및 철저한 감독 하에, 국가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완공된 후기 때문에 도로와 저수지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말, 이에 분노를 금치 못 함에 따라, 옥정리 이장은 철도공사 담당에게 잘못된 말이니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함에 따라 다시 말함, 국가가 경제 발전의 기반산업인 산업철도 건설을 빌미로 국민의 행복권을 박탈하고, 환경권까지 박탈하는 행위는 국가를 앞세워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철도공사,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언행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반박함. 옆에서 듣고 있던 시의원 중 한분 철도 담당자에게 위의 말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것이 좋게 내요? 철도 담당자 默默無答 후 준설은 했다고 눈앞에 뻘히 보고 있으면서 계속 거짓 주장만 내세우고 그리고 도로도 자기네 철도공사 측과는 아무런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 옥정리 이장. 철도공사담당자에게 여기 무슨 의도로 왔으며 이곳 일에 대하여 실권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냐고 묻자 아무대답도 없는 철도공사담당. 시의장님 시의원 관계공무원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모두 바보가 된 기분!

## 라. 옥정마을 문제점 해결을 위한 민원요구

### 위 1.

사진과 같이 결빙구간에 열선을 깔아 결빙온도에 따라 자동온도 조절 시스템을 설치 지나는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도록 시설해줄 것. (결빙 도로에 시공사례가 없으면 처음으로 도입 실행해 줄 것.)

### 위 2.

사진과 같이 현재 물의 높이는 저수지의 물높이와 같은 수위임으로 원래의 지반고로 현재 도로를 복구하여 소형차만 운행 할 수 있게 하고, 사진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도로를 복구 및 신설하여 대형차가 운행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위 3.

옥정 저수지 위 주민 주거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분리, 직접적으로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게 생활 하수구를 개선하고, 준설과 동시 저수지 주변을 마을주민 문화 공간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함.

### 위 4.

이미 철도공사로 인하여 유입되는 물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따라서 옥정마을 전체 배수로 및 하수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임, 농수로 및 하수도 관련하여 민원을 제출 할 때마다 또는 매번 담당공무원 바뀔 때 마다 현장조사만하고 돌아가는 악순환이 안 되도록 한 번에 정비하여 근본적 해결요구.

현재 옥정지 저수지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폐수가 모두 정화되지 않고 저수지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오수와 우수가 분리 배출 될 수 있도록 해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한 번 더 요구함.

### 위 5.

산업철도 철교 보호를 위해 설치한 철조망을 모두 철거하고, 그 공간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화단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함.



위의 철도 잔여 부지를 철도공사는 군산시에 무상영구임대를 하거나 또는

무상 양여하여, 그 5년 동안 아니 영원히 옥정마을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약 50~60평정도 소규모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데 적극 협조 해줄 것을 철도공사와 군산시에 강력히 요구함.

가스밸브 스테이션 비상 배출관은 자동 자바라 식으로 교체해 마을 환경 개선에 협조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함.

교도소 노후 철조망을 현대식 펜스로 교체하여 마을 환경개선에 협조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함.

#### **위 6.**

철도 주변 우수를 배출하기 위해 시설한 U자 배수로에 그레이팅을 설치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발작물 재배를 위해 이용하는 노령주민 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위 7.**

철도공사는 볼품사나운 철도 교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도장을 하고, 철교 양쪽으로 조명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없다며, 묵살한 것은 너무 의욕이 없는 회피성 답변으로 사례가 없으면 처음으로 시공하여, 이와 유사한 타 교량시설물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철도교각을 화려한 색상과 조명으로 디자인 발상전환. 옥정마을의 랜드 마크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함.

#### **위 8.**

자동차 전용도로 부근 언덕길로 눈이나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상시 결빙구간으로 통행의 위험과 불편이 상주하는 장소이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와 소음 그리고 야간에 자동차 라이트가 가정집까지 비추어 주민이 잠을 못 이루는 현실을 도로공사측은 신속히 방음설비를 일부구간은 투명으로 교체하고 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 시설을 보안해 주시고 소음차단 시설을 좀 더 높게 설치하여 소음 및 먼지유입이 안 되게 조치하고 주민의

차량과 도보이동 안전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추가로 자동차전용도로 (약800m 구간 현장에서 마을 주민의견 수렴 후) 소음을 막을 수 있게 소음 방지 투명 시스템을 높이 설치하여 주기를 요구함.

## 위 9. 옥정마을 중앙도로

버스 한 대 겨우 지나가면 보행자도 피할 길 없는 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를 확장하여 왕래하는 차량과 보행하는 주민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 마. 종합적 민원 요구사항

위의 사항은 철도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법무부, 군산시, 중앙정부 등 부처별 각기 해결해야 하는 광범위한 요구 사항으로 각부서 별로 해결해야 하기에, 중앙정부 측에서 지휘봉을 잡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함. 따라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대한민국 국회 및 중앙 정부에서 심의 지정하여, 우리 옥정마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부건설을 통하여 저수지 준설을 하였다고 거짓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고, 끝까지 우기는 철도공사 측과 동부건설측은 부실 토목공사로 마을 도로가 침수된 현장과 이 조그만 공사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동부건설사가 과연 할당 받아 진행된 산업철도공사 전체 구간에 대하여 부실 공사 진위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설계, 감리, 공사 감독, 이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위의 주민 요구 사항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문서로 회신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합니다.